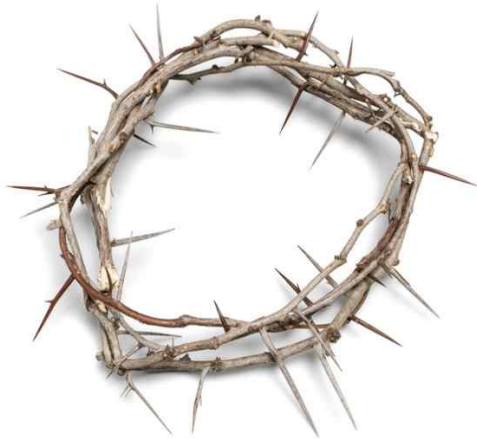


2021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021 년 2 월 17 일 - 4 월 3 일

뉴욕에일장로교회

2021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금년 사순절 새벽기도 설교는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는 단어 40 개를 뽑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매일 하나씩 그 뜻을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성도들의 묵상과 간증을 매일 한편씩 실어 주님과 교제에서 얻은 생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1-4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경의 인물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얻은 혈루증 여인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나눌 것입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 5 편, 유스그룹에서 5 편, CCM 에서 5 편, 물댄동산과 새벽이슬을 포함한 18 개 목장에서 각 1 편씩, 그리고 교역자들의 간증을 모아 총 40 편의 묵상을 겸한 간증을 실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을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귀한 간증을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도 제목

- 1) 코로나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침체된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 2) 개인의 기도 제목: 영적 성장, 육신의 건강, 자녀, 직장, 신분, 구원, 결혼, 학업, 경제적 문제.
- 3) 교회의 기도 제목: 성령충만하고 본이 되는 교회, 직분자 선출 공동의회, 새 성전 리모델링, 연약한 지체의 건강 회복, 선교지와 선교사
- 4) 미국과 조국을 위한 기도: 영적 대각성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차례

순서	날짜	주제와 본문	순서	날짜	주제와 본문
1	2/17	감사(단 6:1-10)	21	3/12	시련(약 1:2-11)
2	2/18	겸손(벧전 5:1-6)	22	3/13	언어(잠 18:1-8)
3	2/19	경외(출 1:8-22)	23	3/15	열매(마 7:15-20)
4	2/20	교제(시 133:1-3)	24	3/16	예배(요 4:23-24)
5	2/22	교회(행 2:41-47)	25	3/17	예수(요 14:1-6)
6	2/23	구원(사 12:1-6)	26	3/18	용서(마 18:21-35)
7	2/24	기도(시 86:1-7)	27	3/19	은혜(삼하 9:1-13)
8	2/25	기쁨(요 15:11)	28	3/20	인내(히 12:1-3)
9	2/26	동행(시 23:1-6)	29	3/22	인도(잠 3:5-6)
10	2/27	말씀(암 8:11-14)	30	3/23	전도(롬 10:8-15)
11	3/1	믿음(왕하 4:1-7)	31	3/24	제자(마 16:21-28)
12	3/2	변화(행 9:1-19)	32	3/25	죄(약 1:14-15)
13	3/3	보호(시 91:1-16)	33	3/26	증인(행 1:8)
14	3/4	사랑(요 13:34-35)	34	3/27	종말(눅 21:10-19)
15	3/5	선택(사 43:1-7)	35	3/29	찬양(시 103:1-5)
16	3/6	섬김(막 10:35-45)	36	3/30	치유(겔 47:1-12)
17	3/8	성령(골 2:28-32)	37	3/31	평안(요 14:25-27)
18	3/9	소망(히 6:13-20)	38	4/1	하나님(호 6:1-3)
19	3/10	소명(마 5:13-16)	39	4/2	하나님의 뜻(살전 5:16-18)
20	3/11	순종(막 11:1-10)	40	4/3	회개(시 51:1-19)

#1 감사(단 6:1-10)

2 월 17 일(수)

#1 감사

이진배집사/브니엘목장

Covid-19으로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 폐쇄되었다. 집에서 근무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지만 금방 끝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되어가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우울한 날을 보내는 중에 아들에게 9월쯤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기뻐지만 경비 문제로 걱정이 앞섰다. 고민 끝에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할지 기도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결혼을 마냥 미룰 수가 없었다. 기도 중 우선 경비는 회사에서 연금을 미리 탈수 있게 되어 해결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날씨가 다가와서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비행기는 세 좌석에 한 명꼴로 앉아가므로 너무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14시간 마스크를 쓰고 가는 고생을 해야만 했다. 한국에 도착하여 2주간의 격리 생활은 정말 많은 감사를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편하게 다닐 수 있음에 감사, 먹고 싶은 곳에서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만나고 싶을 때 만남에 감사...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았다. 이렇게 감사 조건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감사인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부끄럽기까지 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어려운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물었다. 무심코 나는 “내 인생에 2020년은 기억될 만한 일 하나 없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은 “집사님은 어려운 시기에 아들 결혼식을 잘 치루셨지요?” 라고 했다. 맞다. 아차! 또 하나의 큰 감사를 잊고 있었다. 지금 힘든 일상 속을 살아 간다. 그러나 이런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2008 년, 지금 돌이켜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거래처들이 잇달아 부도를 냈다. 당시 연립주택에 도어락과 CCTV 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대금으로 받은 5 만 불, 2 만 불 체크가 줄줄이 바운스를 냈다. 살던 집과 가게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모두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3 개월은 그저 멍하니 집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취직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6 개월간 가게 렌트와 집 모기지를 내지 못했다. 처자식을 생각하니 어깨는 무겁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 마음도 불안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는데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려놓음의 훈련”을 시작하셨고, 나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한국이라면 의지할 친지들도 많고, 손 내밀 선배와 친구들도 많았다. 평소에 잘 관리해둔 인간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타국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이겨내야 했다.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다. 주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주님 제발 제 손을 다시 잡아주세요…” 6 개월 후 랜드로드와 잘 이야기하고 가게를 처분했다. 당시 헉스빌에 있던 집은 은행에 넘기고, 디스힐로 렌트를 얻어 이사를 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았다. 이듬해에는 내가 가진 경력을 활용할 수 경력직 자리에 취업했다. 사업을 할 때의 절반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안정된 직장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다시 잡아주셨던 순간이다. 그러던 중 2011 년 회사의 지원을 받아 에이전트로 독립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내가 가장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던 때를 생각하니, 내 인생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 때가 떠오른다. 주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었고,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셨던 그 때이다. 주님의 긍휼을 입었고, 나의 내면은 단단해졌다. 이제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며 기쁨인 것을 깨닫는다. 당시 고등학교에서 한참 민감한 때를 보내던 딸이 잘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것을 볼 때면, 그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주님 감사합니다.

#3 경외(출 1:8-22)

2 월 19 일(금)

#3 경외

박지혜권사/감사목장

우리 부부에게 팬데믹의 시작은 충격이었고 고난이었다. 비즈니스 상황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4월 한 달 동안은 세탁소를 완전히 닫아야 했고, 5-6월도 일주일에 3일만 6시간씩 일했다. 신앙이 없었다면 이런 시기를 지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 있었기에, 인내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1년 전 즈음 이사를 했다. 두 아들이 장성하여 각자 나가서 사는 상황이 되어, 은퇴준비 차 우리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집으로 옮긴 것이다. 팬데믹으로 수입이 적어지자, 1년 전에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과 자녀들이 독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덕분에 비즈니스 상황이 어려워도 부담이 적다.

또한 일이 적어지면서 반대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바쁘게 일하던 때에는, 월요일만 되면 한 주간 몸이 너무 지쳐서, 하루 종일 쉬기만 했지, 삶을 돌아볼 여력은 없었다. 오랜만에 말씀을 독대하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었다. 주님 앞에 서보니, 내가 지금까지 나만의 신앙의 틀에 갇혀 있었고, 율법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순전한 마음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구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내 마음에 자유함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주의 평강이 나를 덮었다.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분명 나의 상황을 초월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다.

그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새벽에 설교를 듣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늘 되새긴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내 안에 일하시게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순전한 마음이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한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처녀 시절 직장 동료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였는데, 새벽 기도와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하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결국 3 대째 믿음의 가정의 장남과 결혼하게 되었고, 1984 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도 남편은 장로로 나는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딸도 믿음이 좋아 전도사로 주님의 교회를 성실히 섬겼다.

그러던 중 2016 년 갑자기 딸이 36 세의 나이로 세 자녀를 남긴 채 뇌출혈로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남겨진 어린 손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도 그로부터 2 년 후 딸이 신청해 주고 떠난 노인 아파트가 나와서 그 열쇠를 받고 우리 부부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틀 후 남편은 함께 살 아파트로 아직 이사도 못했는데 수면 중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갑자기 시어머님이 아들을 따라서 하늘 나라로 가셨다. 2 년이 채 안되는 동안 사랑하던 사람을 세 명이나 떠나보낸 후, 나는 감당할 수없는 슬픔과 낙심을 경험해야만 했다.

오랫동안 교회 차량 봉사와 여러가지 궂은 일을 마다 않고 감당하던 남편이 떠나고 나니 운전을 하지 못하는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일년동안 주일 마다 롱 아일랜드에서 플러싱까지 왕복을 도와주던 두 아들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를 권했다. 그래서 출석하게 된 교회가 예일 장로교회였다. 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새로운 교회에 정착했어야만 했다. 등록 후 바나바 사역부의 아름다운 섬김이 달혀진 나의 마음을 쉽게 열게 했다.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놀랍게도 치료해 주셨다. 또한 목장의 목자 부부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도 외로움을 잊고 한 가족됨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다.

혈육이 내 곁을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다. 새로운 영적인 가족과의 사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아파하던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는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려고 한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며 살려고 한다.

내 인생은 늘 모험이었고 도전이었다. 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진행된 적은 별로 없었다. 예상 밖의 행운에 기뻐하던 때도 있었지만, 예상 밖의 어려움으로 실망하고 절망하던 때가 더 많았다. 지금으로부터 2 년 전 우리 가족은 뉴욕으로 이사할 기회가 생겼다. 신랑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5 년을 지내왔던 버지니아에 정착하여 계속 지낼 것인지 아니면 뉴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다시 부딪힐 것인가에 대하여, 신랑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였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뉴욕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니, 부담도 되고 걱정이 많이 되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순탄하게 이끌어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해왔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틀린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순항에 대하여, 나와는 다른 정의를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항해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거룩한 자녀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다.

이제와 다시 돌아보니, 내가 살면서 지나왔던 어려웠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었음이 뚜렷해진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시간들은 신앙의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사를 앞두고 두렵고 고민되었던 나의 마음은 점차 평안해졌다. 뉴욕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모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 우리 가족을 따뜻한 예일교회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많은 도전과 두려움들을 통해 나는 그분의 자녀로 성숙해 갈 것이다. 나의 모험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모험이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이 예일교회안에 뿌리내리고 성장하길 소원한다.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험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친구 따라 예배당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갔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낯설지 않고 포근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의심없이 믿어져 영접기도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청년부에 들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 자신이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과 함께 고민에 빠졌다. 분명히 청년부 예배, 수련회, 기도회, 찬양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걸까 하고 깊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기도하면서 신앙의 선배들과 고민을 얘기하던 중 어떤 분이 4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했다. 처음엔 이해가 안됐지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고통 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씀을 읽던 중 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아프게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일교회를 출석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 명료해졌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나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 영혼을 터치해 주셨을 때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신 것이었다.

살면서 수많은 삶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그 때마다 나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문제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되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하였고, 위험은 새로운 기회가 되게 인도해 주셨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 드린다.

요한 1 서 1 장 1-4 절을 묵상하던 중 외할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함께 내 인생의 롤모델이셨던 외할아버지는 교육자로 은퇴하신 분이다. 인품이 고매하셨고 따뜻한 성품과 성실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손주인 나도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내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며 적응하는 동안 수시로 전화로 격려해 주셨다. 당연히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생활하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жа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새벽기도회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얼마 후 할아버지가 회복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는 동안 할아버지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교회에서 믿음생활 하시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면하기까지 하셨다. 이후 할아버지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할아버지의 일을 통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또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생겨서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고난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이제는 결코 두렵지 않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는 나의 일상 중 하나였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듣는 분이었고 일상 가운데서는 계시지 않는 분으로 여겼다. 그렇게 지내다가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나는 낯선 환경과 언어문제로 인해 힘든 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갑자기 찾아 오셨다.

하루는 TV 를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TV 에서 본 그들의 표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웃음이 있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한 주를 보냈다. 주일이 되어 어느 때와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내가 늘 고민하던 질문의 답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보다 거룩한 분이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다(렘 29:11). 그때부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지금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는 말씀을 묵상하면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옴을 느끼게 된다. 지금은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고백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Many people will think that Jesus isn't real, despite all the little everyday miracles that happen all the time. I heard so many stories, in the Bible, in church, and from friends, but the one favorite story about Jesus is a story my mom shared with me, which is about how she met Jesus. She told me that it happened when she needed Him the most. She always tells me that even if He isn't with her physically, He is still there spiritually and inside people's hearts. She met Him because she was lost and needed an answer, and she shared with me that ever since she met Jesus, she never felt lost again. The things my mom shared with me helped me realize that even though it doesn't look like He is helping you, He actually is, because He is inside all our hearts, the hearts of the people that He sends to help. I think that He blesses you by guiding your own thoughts and feelings so that you can help yourself and others. But if you need it, Jesus will come and help you, in inexplicable ways. That is why I think of Jesus as my best friend. He is willing to help, He is always ready to make you feel better, and He loves you unconditionally.

이제 어느덧 7 학년 초반에 이르렀다. 미국에 이민 와서 주중에는 바쁘게 비즈니스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열심히 봉사하며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예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등록하면서 바로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 첫번째 단계인 101 과 두번째 단계인 201 을 하게 되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바쁘게는 살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목록가를 외워 부르면서 히브리서가 구약인 줄 알았던 과거가 부끄러워졌다. 체계적인 말씀 훈련이 산만했던 나의 마음 발을 잘 정돈된 정원으로 바꾸어주었다. 성경 일년일독 프로그램인 평삼주오를 한 해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해 오면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경을 읽고 답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요일예배 때 배운 '성경탐구 40 일'을 통해 성경 지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사실 지리를 모르니 성경을 읽어도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었는데 그것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양육할 때였다.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교재를 새까맣게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외우고 했다. 목사님의 강의 교안 CD 를 달달 외웠다. 그제서야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와 폭설로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축적된 말씀의 은혜와 영양소가 없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취하며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11 믿음(왕하 4:1-7)

3 월 1 일(월)

#11 믿음

서은순집사/예가목장

부족함없이 자라 철없고 교만했던 나를 주님께서 낫선 미국 땅에 오게 하셨다. 둘째 아이 David 이 자폐증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내 뜻과 내 지식으로 교육하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이가 십대가 되도록 자신의 언어로 의사 소통조차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제서야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자복하며 내려 놓았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며 아이를 낳게 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기도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던 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나를 공허의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면서 자유와 평안이 한 순간에 내 마음에 찾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생각은 아들이 곧 나아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나에게 또한 심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잘 자라서 이제 자신의 일을 조금씩 찾아가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였다. 나의 환란 때에 말씀으로 만나 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한다.

#12 변화(행 9:1-19)

3 월 2 일(화)

#12 변화

신경호목사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교회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시면서 반대하셨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 오는 친구들이었다. 나의 부모님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는데 그들의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다. 자연히 우리 부모님도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다. 몇 년 뒤 어머니께서 중한 병에 걸리셨다. 나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했다. 그렇게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우리 집은 모두 예수 믿는 집이 되었다.

찬양이 좋아 교회에서 찬양팀도 이끌고 찬양대 지휘도 하다가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의 초청을 받아 2003 년에 미국에 왔다. 그렇게 6 개월이 지날 때쯤 영주권 스폰서에 문제가 있고, 교회사역의 자리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라고 믿고 아무 것도 모르는 미국에 왔는데 앞이 막막했다. 아내와 다섯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왔는데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기도할 때마다 울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답답한 상황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나의 신앙도 바닥이 난 느낌이었다.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며, 눈물로 말라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안타깝게 나를 보고 있던 아내가 지인의 교회 부흥회에 한 번만 가보자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 교회는 주일에 학교를 빌려 쓰기에 주중 집회는 그 교회 장로님의 넓은 지하실에서 의자를 깔고 모였다. 교회도 아니고 습기 찬 가정집 지하실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찬양팀을 이끌었던 나에게 찬양팀도 없이 혼자 반주하며 찬양인도를 하는 모습에 은혜 받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는 연신 잘못 왔다는 생각이 솟아났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회복을 주제로 한 말씀이었다. 이게 웬일인가?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덩치가 커서 숨을 수도 없는데 주책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주변 시선을 포기했다. 그동안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난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 지하실에서 그토록 기다려 주셨던 것이다.

남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명색이 찬양 인도자인 나도 주님을 만난 것처럼 거짓으로 살아왔다. 주님은 화려한 찬양 속에 계시지 않았다. 습기 찬 지하실에 계셨다. 주님은 높아진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속에 계셨다. 주님은 능란한 웅변 속에 계시지 않았다. 주님은 진실한 복음 속에 계셨다. 그 지하실은 나의 압박감이었다. 나는 변했다. 삶이 변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변했다. 이제 주님만 위해 내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으로 오늘도 주를 섬기고 있다.

2019 년 9 월 22 일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머리 뒤쪽 부분에 기분 나쁜 통증을 느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직장동료가 나를 대신해서 수퍼바이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수퍼바이저는 급히 앰블런스를 불렀다. 말이 어눌해지는 나를 보고 직장동료들은 스트록인 것 같다고 했다. 앰블런스는 나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의사들은 수술을 해도, 하지 않아도 살고 죽는 것은 반반이라고 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죽음을 생각하니 엄청나게 많은 지난 날의 죄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한 순간에 지나갔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모두 세 차례의 수술을 했다. 2019 년 10 월 2 일 첫 뇌동맥류 수술을 한 후 뇌 수술은 잘 되었으나 눈이 완전히 안 감기는 것을 알았다. 눈을 완전히 감고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 눈을 위해 약 열흘 후에 눈 수술을 했다. 눈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새 눈을 얻은 것 같은 감사를 느꼈다. 2020 년 3 월 4 일 다른 한 쪽의 뇌동맥류 수술을 했다. 이번 수술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 캄캄한 터널과 같았던 수술과 입원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아 주셨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나를 포근히 감싸주신 것 같은 보호의 느낌을 느꼈다.

현재 나의 삶은 주님께서 연장해 주신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술 전과 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술 전에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끔씩 주인이셨다. 이제 수술 후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셨다. 수술은 나의 육신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치료했다. 영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회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긴 수술 과정을 통하여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심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목장의 목원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이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해 본다.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

#14 사랑(요 13:34-35)

3월 4일(목)

#14 사랑

김민목사/영아&유치부

갑자기 찾아 온 질병 앞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나일까 하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서러움과 외로움에 지쳤고 남 몰래 많이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는 살갑게 남편에게 얼마나 힘드냐며, 한국에 사는 큰 시누이가 아픈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막내 동생이 가여워서 전화조차 못한다는 말을 하셨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나인데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불쌍했다. 샤워 욕조기를 틀어 놓고 세상 떠나가라 울었다.

다음날, 아무 기대감 없이 무작정 교회를 갔다. 그냥 예배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애타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울부짖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걸까? 멍하니 앉아있는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다. 그분과 마음속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많이 힘드니?’ ‘네, 힘들어요.’ ‘아무도 네 마음을 모르지? 누구에게도 네 마음을 설명할 수 없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철저히 혼자예요.’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나는 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다. 그리고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살고 싶어 울부짖은 나의 고통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구요? 나의 가족조차 알지 못하는 이 절규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구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사실을 한 번도 몰랐던 것처럼 아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그 사랑에 압도되고 말았다. 그냥 그 사랑이 나를 송두리째 덮어 버렸다. 목 놓아 한참 울었다. 그러나 이 울음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고백했다. ‘하나님! 저 이제 괜찮아요. 휠체어를 타든, 어떤 형편이 처해서 죽게 되어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대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의 아픔만큼이나 아파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싶다.

1998년 9월의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 오셨다. 나를 모태신앙이었는데... 나의 신앙은 자유롭고 무절제한 대학생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관심 밖이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매력 있는 청년이 되고 싶었다. 술자리마다 앞장서서 찾아갔고, 사람들에게 나의 매력을 드러내고자 힘썼다. 대학 첫 학기, 일주일에 4-5일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보낸 것 같다. 언젠가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내 마음의 소리를 무시했다.

그 날은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학교 정문 앞에 쓰러져있었다. 뺨뺨을 확인해보니 친구들은 4시간 전에 술집에서 사라진 나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외침이 들려왔다. “문권아, 이것이 네 삶이 아니다. 네 삶이 아니다.” 내 영혼도 나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 기숙사로 걸어가면서 그 내면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도 계속되었다. 그 날 나는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에 나갔다. 찬양이 시작되었고, 나의 눈물도 시작되었다. 하나님께 죄송했다. 예배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밤 들려온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였다고 믿는다. 계속해서 외면해 왔던 나의 영혼의 외침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 하늘에 닿았던 것 같다.

그 날 이후, 21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날이 나의 삶의 전환점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에, 나도 한 발 더 그 분께 다가가기로 했다. 그 날 이후 나는 청년부에 들어갔고, 선교단체에 들어갔고, 과 기독교인 모임을 만들었고, 나의 멘토 목사님을 만났고, 방학마다 선교를 나갔으며, 결국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 그 날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16 섬김(막 10:35-45)

3 월 6 일(토)

#16 섬김

Brandon Kim/Youth Group

When I first entered the Youth Group, I was always reluctant to go to retreat because I never connected to the people at Church and I felt like I didn't fit in. In my freshman year, I went to my first retreat after people convinced me to go. I felt uncomfortable because I didn't really know what to do and I was nervous. But when we had our first prayer night, I felt something different. When I went down to pray, I started to pray more than I ever have before. I was never an emotional person, but when I put my head down, I started to tear up. I felt tears coming that I never thought would come because I never cried that much before but I started to cry. The whole experience I felt so life changing because I started to see what I was missing: I wanted to make myself known more and serve more for God. I ended up becoming an officer this year and ended up trying to serve the church more. I never served that much in church before, but after my first retreat, I began first going to more retreats, and trying my best to help serve the church in any way I could because I felt the need to serve God more because I felt I wasn't serving him enough. I wanted to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him because I started to see him as powerful and willing to save anyone to those who continue to serve him. I learned so many things about him over the years of serving and learning more about him through reading the bible. I have to continuously pray to him for guidance and for teaching. God continues to guide me whenever I am lost and teaches me that he is always there to show me the way when I don't know where it is.

#17 성령(골 2:28-32)

3 월 8 일(월)

#17 성령

홍정자목사/사랑선교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고민하던 사춘기에 나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 1974 년도 여의도 광장 '엑스포로 74' 부흥집회는 나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매우 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내가 출석했던 교회의 청년들은 거의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의무적으로 봉사하라는 권면을 받았었다.

열심은 있었으나 성경지식이 부족해서 영적 혼란을 겪고 있던 나에게 누군가 고등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것을 권면해 주었다. 분명한 신앙관이 필요했던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눈먼 강아지같던 나는 성경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되었다. 함께 말씀을 배우던 분들의 뜨거운 영성이 나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매일 예배가 있었다. 찬양이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었다. 전도사나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한 말씀과의 만남이 자신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었다. 말씀 충만이 성령충만이라는 체험을 맛보는 시간들이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음전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품게 했다. 지금도 예일전도단을 이끌며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전하는 힘이 아마 그 때 생긴 것 같다. 주님께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내 마음 속에 늘 충만하기를 오늘도 간구한다.

#18 소망(히 6:13-20)

3 월 9 일(화)

#18 소망

정신범전도사/새벽이슬회

모태신앙으로 시작한 나의 어린 시절은 교회가 전부였고, 생활이었다. 초·중학교 시절은 그저 친구들이 좋고, 교회가 재미있어서 다녔고, 더 자라면서는 신앙과 가치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던 외할아버님을 보아오며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자기희생이 필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목회자의 길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사명을 받으신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큰일을 계기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나는 어려움이나 큰 사건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찾으시나보다’ 하는 생각이 그냥 가슴에 들어왔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예일장로교회에서 새벽이슬을 담당하는 전도사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 때도 있다. 예전에 허리를 다쳐서 척추 전문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다. 의사는 나를 척추 교정 전문 침상에 눕히고서 허리를 교정해 주었다. 그런데 의사가 나에게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은 “몸에 힘을 빼라”라는 말이었다. 나는 힘을 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몸을 만지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지나칠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갔던 모양이다. ‘왜 나는 힘을 빼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마도 내가 긴장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빈번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빼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화려한 경력이나 높은 학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성공적인 사역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역자로 살기를 소망한다.

나는 목소리가 작고 조용해서 그런지 가까이하기엔 좀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천성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나는 결혼하고 25 세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의 급하고 과격한 성격은 당분간 지속되었다.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도 누가 내 차 뒤를 바짝 붙거나 나에게 소리 지르거나 하면 여지없이 브레이크를 밟아버렸다. 나를 추월해서 앞으로 들어오려 하면 전 속력으로 따라 잡았다.

나는 40 세에 장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다. 나를 급작이 많이 손보신 것은 내가 예일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후부터였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과 기도의 재미를 느끼게 하셨다. 나의 과격한 성격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좀 더 오래 지속되었다. 직업상 조그마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 한 가지 신비한 것은 그때마다 말씀가운데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해 주셨고, 나는 그로인해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작은 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다. 모세에게는 말라비틀어진 나무 지팡이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하찮은 물맷돌 다섯을 주셨다. 그것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그럼 나에게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해 주셨다. 내가 너에게 눈물을 주셨다고. 아직도 내 마음 속에는 싸움이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눈물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 눈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듣고, 보고, 만진 주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My faith journey can be broken into three life stages. God has been truly faithful in all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my childhood.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and grew up in the church. I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discipline and upbringing of my parents and leaders of the church. I was nudged and somewhat forced to do a lot of bible studies, church performances, retreats, discipleship training, mission trips, workcamp, etc. Church community became my closest social group. My faith was mainly circumstantial.

In college, God really broke down the shells of my faith. I thought I could live on my own, going away from my parents, peers, and the faith structure I grew up with. However, I reached emotional, mental, and spiritual lows until I finally had the nudge again which brought me back to church. I renewed intimacy with the Lord. He healed my brokenness and built me into who I was called to be. It would be impossible without the church community that God blessed me with in college. It was fueled by the incredible mentorship, training, discipleship and love from the people around me.

Now I am in the third stage of post college transition. I left the comforts of my college community to come back to Yale and be a blessing here. God has challenged me to realize that the structure and ministries of the church should not solely dictate where my faith is. Instead, I could grow up spiritually by deepening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Church community still really encourages me and has fueled me to continue to grow in my faith. But, now I anchor my faith in following the Holy Spirit, His word,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 sovereignty of the Heavenly Father in my life.

Being born into the faith and growing up in the church, I've seen glimpses of God here and there. And while I prided myself in knowing the Bible well, I never felt the impact of God's promises and love.

Personally, 2019 was hell. There were one too many times that I found life unbearable. Countless times I prayed to God, asking Him to show His face to me so I had something to believe in, to prove to myself that He was still with me and didn't abandon me. I heard nothing from Him.

During winter retreat, I halfheartedly prayed until I heard God's voice through praise: no matter how far away you think you are from Me, there's no place that is too far for My love to reach. Like a broken dam, all the feelings of heartache and frustration flooded out of my heart. As I let go of my pride and stubbornness, I felt God's love for the first time.

In that moment, I could feel God comforting me and telling me to hold steadfast to Him. I realized God didn't ignore my prayers, but rather planned for me to become vulnerable so that His majesty would resonate all that much more. God never abandoned me; He was patiently waiting for me to surrender so that He could overwhelm me with His love and beauty. All this time, He was waiting for me to fully accept Him into my heart, so that He could shower me with His blessings.

I am, and will always be, a child of God and an inheritor of His kingdom. Though I may still struggle with my faith, I will never doubt God's mighty hand in my life again, even if He seems silent. Whether my heart is fully intact or in a million pieces, as long as it is in God's hands, I will be alright. This I believe with all my strength, and in God I believe with all my being.

#22 언어(잠 18:1-8)

3 월 13 일(토)

#22 Charles Park/6th, Caleb Lee/5th, Erin Kye/5th, Joshua Kwon/6th

Jesus is my Leader. He helps me to know what I should do when I'm mad or sad. He helps me through the Bible. Whenever I read the Bible, I learn more about what I should do. When I get mad, I sometimes read the Bible and I realize I should apologize or when I get sad, I read the Bible and I feel better. This is why Jesus is my Leader (Charles Park/6th)

God is the one who I go to when I'm in trouble or stuck. God is my Savior because when my dad broke his wrist, me, my mom and my brother prayed for him and he is getting better right now! God is also very nice because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die on the cross for my sin, and because of Him, I can go to a school and learn! Another thing is that God is good because He created the world and also me! Lastly, if God did not make the world, I would not exist (Caleb Lee/5th).

First of all, God is the Creator. God is the Creator and He made all things. Second of all, God is caring and trust worthy. God is caring because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sacrifice for our sins in order to save and protect us. God is also trustworthy because of what I know from Abraham's story. In the Bible, God promised Abraham a child and even though Abraham had to wait for many years he trusted in God. Because he trusted God, Sarah had a baby. Lastly, when my mom broke her knee, me and my dad prayed for a good recovery and she healed. Now she can walk. Therefore, I know that God is the Creator, the Trustworthy One, and the Caring One (Erin Kye/5th).

Jesus is a friend that I can always rely on. He's always been there through my troubles and He's like this ray of light that does everything that I need help with. During the time when my old church's Pastor passed away, during when my dad got an injury, and during when my dad needed a better job, Jesus was always there. He was always someone I could think about to take my mind off of troubling things. He was always there as my friend, He was always there as a reliable flashlight that lit everything, and He was, will, and will continue to be there. He helped me a lot when my old church's Pastor passed away as Jesus was someone that I could look at and believe that the deceased was in a better place. He helped me endure and I owe him much more than I can give back. He will always be somebody whom I can trust, rely on. He is the One that I will always know to trust in (Joshua Kwon/6th).

#23 열매(마 7:15-20)

3 월 15 일(월)

#23 열매

Daniel Sahn Kim/CCM

On June 1st, 2020, at 4:52 a.m., my son was born into this world in the midst of an ongoing pandemic. The events that led to my son's birth is a constant reminder to me of how real and present God is in my life. My journey as a new father came with unprecedented challenges. At the onset of the shutdowns and restrictions last March, it was unclear how I would be able to help my family stay safe. With limited knowledge of how the virus could impact us, I often had to make anxiety-inducing decisions. For once in my life, I came face to face with my mortality.

When Henna to go to the hospital to give birth, there were chaotic moments. From leaving my car parked illegally in front of the hospital to the limitations we faced due to COVID-19 protocols and regulations, the moments made my son's birth disheartening. However, God graciously touched me from inside to stay calm, positive, and strong for my wife. I was humbled because there was absolutely nothing, I could do except put my hope in God. Although many things could have gone wrong, God allowed the safe and healthy delivery of my son, Dean.

Despite unexpected despair and loss, I was reminded of how real the gospel is in my life. Recognizing God's sovereignty even in the darkest moments, I held onto joy knowing that God is my only hope in life and death. When health can no longer be taken for granted, God has protected us and looked after our family. Just as I worry about raising a child in this pandemic but joyful for having my son by my side, I draw parallels to my heavenly Father who is always demonstrating His steadfast goodness and faithfulness, despite the circumstance.

#24 예배(요 4:23-24)

3 월 16 일(화)

#24 예배

Esther Han/Youth Group

Last March, before anyone knew how largely impactful covid would be, it was easy to keep a positive mindset. But as days turned to weeks and months, the question of “when will this end?” began to break me apart.

I cried often, in memory of when things were “normal.” I missed praising together with the praise team. I missed the interaction with my grade girls during bible study. I missed being chased by and hugged by my adorable 유년유치부 dongsaengs. I become more sensitive towards the actions of my family members and began to lose control over my own thoughts and emotions.

Why would God let so many people die? Why is he allowing my friends to fall away from church? I began to question God’s identity. Is He really a God of love and mercy? Is God really Good? Most of my prayers were angry prayers asking God why he was doing this and for Him to fix things fast. In June, when it was announced that the church was reopening, I was overjoyed. God had heard my prayers but responded in a way I never expected. That first Sunday, my little brother and I were two of three people at in-person service.

It was that moment of devastation that it became clear to me what the core of my problems was: I didn’t know how to turn to God by myself. I relied too much on church and the people in church for my faith rather than turning to God myself. I so easily doubted God’s goodness and failed to trust in His plan without others guiding me to. But more importantly, God made it clear to me that He wasn’t going to let me take the easy way out. I needed to change.

This past year was a time of realization and training. Not only were my eyes opened to see my faults and lack of true worship, but I was also reminded that God is almighty and full of love. He has a plan for me; it was me who was blind to it. I am also very thankful and feel truly blessed that God allowed me to encounter this before college. Yes, I am still so far, and very lacking, but I want to continue to build up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grow into a beautiful daughter of His.

#25 예수(요 14:1-6)

3 월 17 일(수)

#25 예수

Joyce Lee/6th Grade(유년부)

My holy best friend, who I've met long ago. Every single day, I see the light of the day, I remember the Lord. I cannot remember about the time when I was taken to the church for the first time. I didn't pay attention to Him, until the light of my life came through me.

Christmas, the day of presents, that's what I thought. Until the tradition came, my parents read about how Jesus came to earth and how He saved us. That time is when I realized that He was the one who is a savior and the light that came to me that day.

The light was like an arrow that was coming at me. Like the greatest news I have ever heard. After, He was with me always. Those who follow Him are saved. He is there with everyone as they have started their day, the light will always defeat the dark. The light has been with me since I was born, but the light had showed up to me when Christmas was here.

He will protect me no matter what. He protects me even if I ignore Him sometimes, and He will protect me from illness and harm. I will not be alone; he is there and I am lonely. He will raise me up again when I fall.

In family worship, the Lord is with us and listens to us when we praise and pray. He will answer us and He will make a plan how we could achieve it.

Jesus' light brightens my day like the sun does. I am not blind by my own ways, because He is with me. His words are like music to my ears. Praises to Jesus is cheerful and lifts my heart. He is always there for me when I need help. He is one and only Lord you should ever worship, He shall be the one that guides me. He will be the hero that rescues me from Satan's prison. He is the one who is next to me to comfort me anytime that I am down.

"I shall walk by faith when I can't see" is one of my favorite verses from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7. It means that I should place my faith in Him.

He is a Holy friend that is loyal, He can keep secrets. He is kind, He'll also care for others.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He is a type of friend that will never let you go. He is the king of kings, lord of lords, He is our savior. He is my best friend forever.

Believing in Jesus as a kid is easy. As you get more embedded in the secular world, it gets more difficult to believe that God exists. However, despite my struggles, I have come to realize that God is with us and has a plan for us no matter what.

When I was in junior high, I struggled with body image issues and bullying in my young age. I had negative thoughts constantly in my head wondering why I am alive. People didn't like me and frankly, I hated myself. I struggled to make friends. There were endless nights of me staring at the ceiling crying and wondering how long I have to endure this pain. I didn't tell anyone, not even my parents, because I thought this was normal.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youth group, I grew closer with my grade at church but I faced a bullying incident. I thought I didn't need God since I dealt with bullying before. But behind closed doors, I was a mess. Reflecting back, I had reached my lowest point. I thought about turning my back to God forever, harming myself, and even ending my life.

During one of the summers retreats I attended; I remember trying so hard talking to God during the prayer meetings. Unexpectedly, I was crying so hard that I couldn't finish sentences. I thought that being 100% happy all the time would be the answer to my situation. But while I was crying all of a sudden, my heart felt so much lighter and I had this comforting feeling that someone was listening to me. Ever since that retreat, I stopped having suicidal thoughts and endless nights of crying. It doesn't get better the way that I expected it but I came to understand that God knows the pain and suffering you go through every day. I am not 100% happy and I don't know when I will ever be but all I know is that I am in a much better place with God on my side.

In the last few years, God has very plainly shown how He loves me in both the big and small things in my life. He has opened my eyes to realize how incomparably holy He is and how utterly sinful I am. I am unable to meet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and my "righteousness" is worthless in front of Him. Therefore, I only deserve His wrath. But God has filled me with rejoicing and gladness by reminding me of his free gift of love and grace that I obtained through Jesus Christ's sacrifice on the cross. Jesus' substitutionary atoning death has tremendous implication not only for the entire world, but also for my day-to-day life.

While God has clearly demonstrated His love for me through the cross, He has shown me that He cares about the little things in my life as well. In events that appear to be fortuitous coincidences, I can see how His hand lovingly cared for me. This was apparent in the way that I got into medical school, how I got into medical residency, and how I got into a fellowship program to become a kidney specialist. I see God's love for me in the way that He provided me with my wife and doubly blessed us with twins in the right time after praying a few years for a baby. He taught us patience and endurance in prayer. These stories are mere samples of the many ways God has been at my side, patiently teaching me of his glory, majesty, mercy, and love.

"When I look at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and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Psalm 8:3-4)

나는 지금 13 년째 병원 중환자실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일이면 주일 성수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작년에는 평범했던 일상과는 달리 폭풍이 몰아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작년 3 월말부터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이 무더기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근무하는 중환자실에는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나마 병실이 부족하여 충분히 돌봐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다.

평소에는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나도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은 매우 달랐다.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투병을 하고 계시지만 가족조차 면회가 되지 않아 기댈 곳없이 힘들게 고통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걸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 가시는 많은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볼 때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다. 때론 좌절감이 나에게 몰려올 때도 있었고, 두려움이 나를 휘몰아 칠 때도 있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계셨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목장에서 기도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너무도 감사를 드린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묵묵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지금은 요령도 생기고, 사망률도 많이 떨어졌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지쳐 무너질 때 중보기도로 힘이 되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During quarantine, Jesus came into my heart as a friend. My friend, is the most perfect Soulmate you'll ever meet. Every sunrise, He will wake you with a morning greet. You can hear His preaching through the sunrise meet. We both sing hymns as we start the week.

He is there with you as you start your work; helps you pass through obstacles and paperwork. With the wisdom He has, He answers your call, and gives you signs when you're about to fall. His protection is strong as you step outside; blocks you from sicknesses and harm. He comforts me whenever I'm down, and shares Bible verses to flip my frown.

During family worships, He sits with us as we praise the Lord. He shares more stories about His life (sometimes scenes that happened before Him), and pours happiness and joy to our hearts. He takes our prayers and answers them all, one by one. And when it's time to sleep, He calms the winds and rain around me, and brings me to peace.

My Friend, whose name is Jesus, can light up every single spots of darkness. He will spoil you with all the love you can receive. So, if accept Him to your heart, He can be your best friend too!

예수님은 제게 가장 완전한 친구 이십니다. 매일 아침, 나를 깨워주시는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예수님과 저는 기도로 만납니다. 예수님께 지난 밤 보호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상쾌하게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주님께 맡긴 오늘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요.

낮 동안, 이런 저런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한 후엔, 주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대요. “그 날 그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 내일도 함께 해 주실 주님을 믿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예수님은 저의 가장 완전한 친구 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유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사신 분이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면서 사셨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리 가정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손들이 되게 인도해 주셨다.

두 달 전, 나의 사랑하는 큰 오빠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너무 일찍 가셔서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 죽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뵈기조차 두려웠고, 이 아픈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나 나의 바람과 달리 오빠는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막내인 나에게 언니와 함께 준비하라고 부탁하셨다.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셨으나 오빠가 못내 아쉬워하신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언니를 두고 가시는 것이였다. 아버지와 같이 오빠도 대를 이어 가정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하고 기도해 오셨다는 것이였다.

오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예정된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다. 헌데 놀랍게도 장조카와 언니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것이였다. 오빠를 만나려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였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나의 아버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의 큰 오빠의 기도를 들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의 큰 언니와 장조카에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신 성령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다. 나는 오늘도 힘차게 외쳐본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저 “WOW!” 라는 표현이 나온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고, 너무 좋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시면서 예수님을 잘 알게 인도해 주셨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나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구세주셨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찾았다. 기도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매어 달렸다. 기도 응답과 많은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 날도와 주시는 분, 나의 대단한 후원자가 되셨다.

그러나 많이 힘들고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었다. 세상도 악하고 나도 악한데 뭣 하러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뺨깡을 부렸다. 이런 내 자신에 나도 놀랐다. 왜냐하면 내가 즐겨 찬양했던 “There’s None Like You” 와 “You are My All in All” 이 다 가짜라는 것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다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내 자존심을 충족해주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난 무너졌다. 예수님이 내 중심이 아니었기에 무너진 것이었다. 예수님이 내 자존심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주셔서 강하게 붙잡았었던 것이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을 주는 분과 사랑을 받고 기분이 좋았던 아이와 같았다.

예수님을 내 중심, 나의 ANCHOR 로 만들기 위해 Bible College 에 갔다. 매일 있는 chapel 시간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의 기도가 나왔다. 어느 날 찬양 시간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확신했다. 처음 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다. 기절할 것 같이 힘들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완벽하고 깨끗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났다. 괴로웠다. 내가 뭔데 그렇게 귀하다고 하시는 지 의아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내 의지와 힘으로 끊지 못하고 있었던 반복하고 살았던 죄들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다. 배설물을 저절로 피하듯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저절로 토 할 것 같이 싫어 졌다. 그날 난 반복되었던 힘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길 힘이 커진다는 것을 체험했다.

전에는 너무 피하고 싶었던 힘든 시간들이 이젠 소중하게 기억된다. 상처가 아물었나보다. 이젠 상처가 아닌 굵고 강하게 키워진 영적 근육이 되어 있었다. 힘든 시간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답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것이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이다. 난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There was a season of my faith when I felt jaded and numb towards God, the church, and everything about Christianity. Faith was just a routine and act I had gotten so good at performing after all the years of Bible study, missions, and Sunday sermons. While I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church, I was far from being ment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connected with my faith. There was a lot of hurt. A lot of baggage. A lot of pent-up emotions with unrepented sin. At a certain point I felt like I strayed too far so any thoughts about running back to Jesus seemed futile. But thankfully, the Lord, in His grace and mercy, did not stop pursuing my heart.

It was just a moment in prayer – a moment where I felt the presence of Jesus so strongly and a conviction to renew my faith in Christ. I started that prayer with a very reluctant and doubtful mind, but as I kept praying, I found myself desperate for Jesus and His presence. During that time of prayer, Jesus was revealing all the sin and baggage I was holding onto, one by one. Coming face to face with my sin so explicitly was extremely difficult, but Jesus was showing me that I didn't have to overcome all of it alone. There was, is, and will be no battle I have to fight by myself. Jesus was ever-present but it was always my choice to invite Him into my life. As God was speaking truths into my heart and rooting out the lies of the enemy, I experienced what felt like an arm around my shoulder, holding me close. I knew that this was Jesus' way of comforting me and letting me know that I didn't have to do life alone. That night I recommitted my life to Jesus Christ and began to pursu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머나먼 미국 땅으로 자녀들을 보낼 때 장인어른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기댈 곳은 예수님 밖에 없으니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라”고 신신 당부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든든한 백이 생기는 것이니 걱정 말고 열심히 네 할 일을 하라”는 말씀도 같이 해 주셨다.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내가 잘하기만 하면 힘겨운 미국 생활도 잘 헤쳐 나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돌아보니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살핌 없이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미국 뉴욕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낳고, 생활의 터전을 일구고, 예일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전 9시부터 90도가 넘던 어느 뜨거운 여름 날, JFK공항에 내려서 이름도 생소한 플러싱이라는 곳에 와서 임신한 아내와 살 아파트를 구하러 다닐 때 예수님은 친절한 브로커를 준비해 주셨다. 학업이 힘들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노트를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친구들이 되어 나를 도우셨다. 누구의 도움 없이 타국 먼 곳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경험 많은 산후조리도우미를 보내셨다. 신분의 문제로 고민할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은 ‘누군가’가 되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안내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안내하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며 돕고 계셨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고비를 넘을 때 마다 기댈 곳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항상 돕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모습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그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소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예배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여전히 수술을 앞둔 몸의 아픔과 사역과 삶의 일들을 놓고 한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고요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나를 만져주셨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나의 등 뒤를 안으시며 '내가 다 안다'는 말씀을 마음에 들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것이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 영혼이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는데 수술 앞둔 내 육신의 문제와 삶의 안위를 구하던 나의 소원이 주님 닮아 온전해지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살고 싶어 지는 것이었다. 그 날, 그렇게 아침 햇살이 교회 창문을 통해 가득 들어올 때까지 나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 품에서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몸 속 한 부분을 다 드러내기로 예정되었던 수술은 몸의 변화로 간단한 복강경 수술로 바뀌었고, 나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우리 주님과 행복한 사귄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예일교회에서 처음 드린 주일예배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주님과 사귄 것이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Ever since I was young, I was always believed in God. I went to church from a very young age when I lived in Queens to now at Hicksville. My level of faith was shallow because I didn't know how to develop my relationship with God. I started to serve in the Sunday School choir to try to increase my faith. Although that didn't happen, I realized that I have a talent for singing, so I continued to serve God with my voice.

Upon joining Youth Group, I joined the Youth Group choir as bass and have continued to serve until now. Being in Youth Group changed my entire perspective of my life and I hoped that while I was here that I can possibly have the opportunity to see, touch, or hear Jesus. The first couple of retreats while being in Youth Group barely affected my faith. I didn't really consider praying to God about all the issues that I had in my life. But, a year ago, the "True Love Waits" seminar/retreat helped me develop my love for God. It was the second to last prayer meeting and then that was when I felt the presence of God before me. As I prayed and sang the songs that the Praise Team were singing, I felt touched by God. While I was focusing on the lyrics of each song, the lyrics showed me the promises that God has in store for me and that I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things that cause me to worry. This was when my life started to turn around. I joined the Praise Team as a male vocalist. As I reflect on my unfolding life, I realize that through my ups and downs, God is with me all the time and tha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36 치유(겔 47:1-12)

3 월 30 일(화)

#36 치유

최승연성도/새벽이슬희

나는 부모님의 큰 결정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 함께 오셨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어머니와 나는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 무렵, 한국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무리하게 일하신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시에 어느 병원을 가도 아버지의 병명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길에서, 지하철에서 기절하시는 날이 잦으셨으며, 체격이 좋으시던 분이 어느덧 20kg 넘게 빠져 야위게 되셨다. 죽기 직전 가족을 보러 한국생활을 급하게 정리하시고 오신 아버지는 아프셨고, 어머니는 지인도, 정보도, 건강보험도 마땅히 없는 미국에서 아버지를 간호하셔야 했다. 몇 개월 동안 아버지는 하루에 한 끼 아니 한 숟가락도 못 드시는 날이 많으셨으며, 물조차 마시기 힘들어 하셨다. 힘이 조금 나시면 소리 내어 찬송가를 부르시고, 지치시면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하셨다.

아버지의 병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죽더라도 한국에서 죽어야겠다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린 저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새 삶의 터전을 교회 앞에 잡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시고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셨다. 그곳에서 새벽마다 담임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시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다. 어느 날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라고 하였고 정말 그 날 이후로부터 거짓말같이 빠르게 회복되셨다. 아버지는 그날 안수기도를 받으실 때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병이 치유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신 아버지는 최근까지 건설회사에 다니시다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다.

우리 가족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누워만 계셨던 아버지가 걷기 시작하셨는지, 갑자기 회복하셨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아버지의 의사 친구들도 “기적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셨다. 아무래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담임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치유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기적을 옆에서 본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커졌다. 그리고 나의 신앙심도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오리라 더 어려울 것이었다. 그때부터 단단해진 나의 믿음은 계속 이어졌고, 현재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정을 꾸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려 결심한다.

나는 대학 2학년 때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처음 해야 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아니라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자라왔던 내가 이제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외롭고 힘든 길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 때 나에게 유일한 기쁨은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신앙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아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부르심의 소명 앞에 순종하며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 또한 거기서 주님은 남편인 김용호장로를 만나게 하셨다.

살다가 순풍을 만날 때도 있었고 폭풍을 만날 때도 있었다. 삶의 고비 고비마다 함께 동행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왔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너무나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이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시대라서 가족조차도 병원 방문이 자유롭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은 더욱 견잡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남편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현실이었다. 너무 일찍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낙심마저 되었다. 그 때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걱정하며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앞이 캄캄해서 두려움 앞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믿음은 해석이다'는 말씀과 '아픔은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졌다. 우리 부부가 힘들 때 사랑하는 아들들로 부터 받는 위로는 너무나 큰 보람이었다. 이제는 아픔을 통하여 받은 사랑과 감사를 교회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사명으로 해석하며 살려고 한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ich a man found and covered up. Then in his joy he goes and sells all that he has and buys that field."

- Matthew 13:44 ESV

For most of my teenage years, I knew pretty well about who Jesus was and I also knew pretty well how to be a good Christian. I rarely missed Sunday service, served on the Praise Team, tried to be a morally good person and encountered God during retreat prayer meetings.

But my life changed in the 2nd year of college, when I opened the Bible and began to read scripture on my own. I was shocked that throughout entirety of scripture, it was more than just knowing *about* a God – it was more importantly about *knowing* God. Every spiritual truth I learned from youth became my own and I bega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As Jesus put it, it was as if I had found a treasure in the field, where in my new found joy, sold all that I had by putting all my hope in Christ.

Today, this means in everything I do, I no longer strive for the life I desire, but turn to live for the glory of God. I'm nowhere close to perfect, but because of God's grace, He is leading me into a pursuit of a purpose that is far greater and far more infinite than living out a comfortable life on Earth.

#39 하나님의 뜻(살전 5:16-18)

4 월 2 일(금)

#39 하나님의 뜻

박성우집사/소망목장

이젠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20 여 년 전의 일이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의 마지막 날,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조각조각으로 부러져 뼈가 없어진 다리와 자신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을 보며 삶의 의지가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는 것을 느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다. 무언가 그분이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은 믿음이 들었다. 교회와 목장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중보기도 소리는 나의 없어진 뼈와 살을 채우기 시작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목발에 의지해야 했다. “좋아지면 선교 한번 가십시다.” 하고 선교담당 장로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네 한번 가가지요.” 하는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했다. 단기선교 파송예배 후 복도에 줄지어 선 단기선교 팀과 악수하며 격려할 때 내심 부러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12 시간씩 옛세 일하고, 주일엔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이 되면 직장으로 출근하는 빠듯한 삶에, 그 당시 열혈이 넘는 일정의 단기선교는 시간 많고, 재정적 여유도 넉넉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사역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미덥지 않은 대답에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안경사역 아이템이 선교에 새롭게 시도되었는데 이를 배우는 검안공부에 재미가 들리게 하셨다. 선교현장에서 육신의 눈을 밝게 볼 수 있도록 도우며 함께 영의 눈도 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이다. 시간도 여유도 믿음도 나아진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여건을 변하게 만드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덤으로 주신 삶의 이유였다.

기억도 생생한 제 작년 추수감사절. 목장찬양제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통증이 시작되더니 침대에 오르다 가슴을 쥐고 주저앉았다. 911 에 전화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나 떨려서인지 자꾸 어디냐고 물어보는 소리만 작게 들린다. 심장으로 연결되는 5 군데의 혈관 바이패스 수술을 했다. 또 덤으로 좀 더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보면 천국으로 부르시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인생인가 보다.

팬데믹으로 생업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 아니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그 중 하나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깨우친 것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 모여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한 우리의 사귄이 그렇게 귀한 기쁨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목장에 모여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잡은 손에 마음을 모아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이제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눈이 깜박거려지는 것도 감사하다. 주면 넘치도록 받고, 약할 때 강함 되고, 낮추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역설이란 목사님 말씀이 다시 한 번 마음에 다가온다. 이것이 두 번째 덤으로 주신 삶의 이유인가 보다.

2 년전 내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떨리고,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몇 년을 아들로 인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 나아지겠지 했으나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나서부터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를 덮었다. 어느 때는 찾길에 뛰어드는 것만이 이런 감정을 멈출 수 있다는 순간적인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에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 속삭임' 이라는 것을 알고 온 몸을 동동 구르며 울기만 했던 때도 있었다. 이것은 불안장애, 일명 공황장애 발작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아버지! 때론 부엌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지하에 내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주님께 매달렸다. '살아야 하잖아요! 나는 살아야 하잖아요! 아들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울며 기도하는 나에게 놀랍게도 나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히 믿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 있었고 내 삶에 능력이 되지는 못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과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았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았다.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울며 주님을 찾았다. 당연히 새벽기도자리가 나의 피난처였다. 불안장애가 올 때마다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붙잡는 길이 사는 길이었다.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겨드렸다. 자녀도 주님께 맡겨드렸다. 지난 수 년 동안 자녀로 인해 생긴 불안감도 맡겨드렸다. 내 영혼 깊이 자리잡고 있던 아픔도 주님께 맡겨드렸다. 대신 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2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게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온 불안장애와 자살충동까지 더한 두려움은 이젠 옛 이야기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찬송을 드린다.

나의 기도하는 것 보다

홍정석
made by musicday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 나 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 나 님



우리가 온데 역 사 하 신 능력 대 로 우 리 들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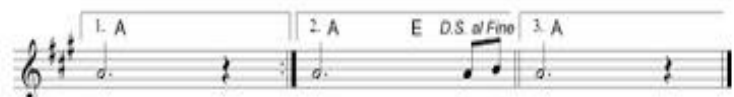
간 구 함 을 넘 치 도 록 능 히 하 실 주 님 께 모든



영 광 과 존 귀 찬 양 과 경 배 를 돌 릴 지 어 다 모든



영 광 과 존 귀 찬 양 과 경 배 를 돌 릴 지 어



다 다 모든 다